

# 市 “광주형 미래산업 설계” 道 “헌법개정으로 지방분권”

##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

주제발표...지역 미래 청사진 제시  
강 시장 “AI·미래차, 전략적 선택”  
김 지사 “특자도로 성장동력 창출”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만의 전략적 미래산업 설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 참석, 각각 발표를 통해 지역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시도지사협의회는 지역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를 중심으로 개막식과 시·도지사 주제 발표, 언론인터뷰 순으로 진행됐다.

강 시장은 지역경제 세션 발표에서 지역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광주의 ‘전략적 선택’에 대해 설명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정치적으로 전략적 선택을 하는 도시로 이름 높지만 산업에서도 전략적 선택을 한 도시”라며 “1960년대 산업화 시대에는 자동차산업(아시아자동차)을, 2000년대 외환위기 시대에는 관광업을, 2018년에는 대한민국에서 선제적으로 인공지능(AI) 택했다. 그 선택이 오늘날 2개 완성차 공장 보유 도시, 관광업 도시, AI 중심도시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전국 시·도지사들이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강 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는 국가질병”이라고 진단한 뒤, 지역균형발전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큰 효과가 나지 않는다”며 “이제는 산업과 교육이 지역으로 와야 하고 이를 위한 메커니즘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그러면서 AI 사관학교, GCC 광주실감콘텐츠허브사관학교와 같은 광주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비롯해 AI와 미래차, 창업과 실증 정책 등을 역설했다.

강 시장은 또 미래차국가산단 및 소부장특화단지 지정 등의 성과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심도시 광주는

이제 대한민국 AI를 리딩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인공지능과 결합한 ‘AI × 문화중심도시’의 청사진도 밝혔다. 강 시장은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교류하며 5·18의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만들어진 것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다. 그 상징물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5·18민주화운동의 한복판 옛 전남도청에 세워졌다”며 “ACC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인프라와 인적 인프라의 결합을 통해 광주는 명실상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AI × 문화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독일 연방제로 보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의 한계와 극복 방안을 설명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독일·프랑스와 같이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현재 수도권 일극체제와 인구절벽 현상, 지방소멸 위기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분권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여전히 권한을 내려놓지 않고 있어 지방정치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

해 우주 발사체산업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에너지, 관광, 농어업과 같은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에 집중된 권한 때문에 제약이 많음을 토로했다.

이에 독일과 프랑스의 지방분권 모델을 소개하며, 독일은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방상원과 공동세 배분 방식 등을 통해 지방에 실질적 권한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프랑스 또한 지방정부 대표 등이 상원을 구성해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며, 중앙과 지방의 사무 배분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결국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항구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은 헌법 개정이라는 게 김 지사의 주장이다.

김 지사는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사무배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며 “또한 자율성과 책임에 기반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보장을 통해 지방이 실질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김 지사는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전남이 잘 할 수 있는 에너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며 “전남에서 먼저 해보고, 그 성과는 모든 지방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지방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노병호·오지현 기자**

## 광주 의원들, 전남 찾아 ‘군공항 이전 논의’

19일 도청서 간담회...도지사 등 참석  
전남도·무안군 측 쟁점 사항 등 논의  
양측 의견 종합 ‘중재안’ 발표 예정

최근 광주에서 ‘군 공항 이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전남에서도 민간·군 통합공항 이전을 위한 민·관·정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전 11시 전남도청에서 ‘군 공항 이전 전남지역 간담회(가칭)’가 열린다.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양부남(광주 서구을)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박군택(광산갑)·민형배(광산을)·조인철(서구갑) 의원, 김이강 서구청장·박병규 광산구청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여한다. 김산 무안군수는 현재 시장 차원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다. 전남도도 조만간 무안

군에 참석을 제안, 김 군수의 참석 여부가 빠른 시일 내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남 간담회는 지난 6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의 연장선으로 추진됐다. 당시 주최자였던 광주시당은 ‘추석 이후 전남도를 방문해 각 지자체 입장을 듣고 대책 강구·후속 작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은 김 지사와 수 차례 연락을 진

행, 간담회 날짜를 확정 받았다.

전남 간담회에서는 전남도·무안군의 군 공항 입장·요청사항 등을 듣는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광주시에 민간공항 선이전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 국회의원들의 참석 여부도 주목된다. 광주시당은 이르면 11일 전남도당에 간담회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다. 최종 윤곽은 추석 전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안 지역 3선인 서삼석 의원은 “간담회 일정은 금시조문”이라며 불참을 시사했다.

광주시당은 두 지역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취합해 빠른 시일 내에 ‘광주·전남 국회의원군 공항 이전 중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부남 시장위원장은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무안군의 입장차가 크다. 조속한 군 공항 이전을 위해 협력·지원의 공감대가 절실하다”며 “광주와 전남 간담회를 따로 연 것도 이들의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듣기 위함이었다. 무안군수가 간담회 당일 일정이 안된다면 직접 군청으로 찾아가 만날 각오까지 하고 있다. 합당한 합당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 어린이집 · 유치원 · 한옥 내 · 외부 · 방바닥 · 전원주택 · 경로당 · 아파트 · 펜션 · 찜질방 · 카페 · 휴집
- 외벽 · 목재 · 양어장 · 물탱크 · 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숨쉬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공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